

4차 산업혁명시대 간호의 새 영역 준비하라

간호사,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하는 법 배워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익숙해지고,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병원간호사회 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병원간호’ 주제강연을 통해 밝힌 메시지다.

이민화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산업혁명은 기술(생산)과 인간의 욕망(소비)이 공존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것이며,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줄이는 반면에 새로운 욕망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오프라인 혁명)과 가

상(온라인 혁명)의 융합”이라며 “이때 새로운 간호요구와 간호영역이 생길 것이며, 이를 찾아내고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디지털 웰스케어는 데이터로 연결된(connected) 지능(smart) 기반의 건강관리를 말한다”면서 “인공지능이 의료인의 일을 빼앗아 간다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최고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런 흐름에 맞춰 교육시스템도 전환돼야 하며, 전문화된 기

능적 인간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최적화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간호 시스템 구축이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라며 “증강기술과 인공지능 활용, 생활습관 개선,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맞춤형 돌봄 등이 새로운 간호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간호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불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처우개선 주력

보건진료소장회 총회 보건진료소 매뉴얼 정리

보건진료소장회(회장 김숙자)는 대표자회의 및 제3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3일 오송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보건진료소장회는 올해 보건진료소 사용 의약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진료소 관련 매뉴얼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회원들의 업무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보수교육을 개발하고, 임상실무 재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성과대회를 11월에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자를 표창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회원 연수를 지원하고, 회원 복지비를 지급한다. 보건진료소장회 소식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한다. 올해 예산은 1억6280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으며, 이재용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이 축사를 했다. 김낙주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보건정책과장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방향과 보건진료소의 역할’ 주제로 특강을 했다.

시상식은 열렸다. △공포패 = 신현주(경기도 남양주시 감염병관리팀장) △간호인상 = 강인숙(전라북도 장수군 대곡보건진료소장) △봉사상 = 김진순(강원도 춘천시 당림보건진료소장).

총회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지역보건료정보시스템 사용자(보건진료소장) 간담회’에서는 ‘보건진료소 통합정보시스템’ ‘교육홈페이지 활용방법’ 강의를 진행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경북여성협 회장에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

제20대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윤난숙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이 선출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취임식은 도내 여성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3일 호텔인터블고 엑스포에서 열렸다.

윤난숙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상북도도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의 회장으로서 경북여성들의 역할을 모아 앞으로 일과 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151만여명 경북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와 시·군의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김낙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여성이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중심의 소통과 화합 문화 조성,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양성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김희순 연세대 교수 ‘대통령 표창’ 받아

제46회 보건의 날을 맞아 김희순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4월 6일 열린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김희순 교수는 보건복지부 정책과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사업방향과 운영체계로 이동 건강지표,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체제를 개발하고, 아동비판관리 사업을 주도하여, 아동건강관리 실무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아동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과를 알



리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가 주도의 통합복지서비스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내용과 운영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통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황관옥 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감사 ‘대통령 표창’

제46회 보건의 날을 맞아 황관옥 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감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4월 6일 열린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황관옥 감사는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회장(2012. 12~2016. 12)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간호를 위한 교육과 정책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호스피스 법 시행과 제도 활성화 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간호사를 대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 호스피스 법제화 준비 TF팀 위원으로서 수가개발,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도입과 제도를 위해 힘썼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간호협회 - 남자간호사회 간담회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남자간호사회와 간담회를 4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남자간호사회 손인석 회장, 이상봉 부회장, 정현철 부회장, 모형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손인석 남자간호사회장은 “앞으로 간호협회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간호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남자간호사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쓰고, 남자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간호사회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자간호사 대체복무방안인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해 힘써줄 것과 공경회 등과 같은 정책 활동에 남자간호사를 전문가로 활용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협회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자간호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남자간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구성해 제공해달라”면서 “앞으로 협력과 상생을 통해 남자간호사의 도약과 대한민국 간호의 발전을 이룩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남자간호사는 1962년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했으며,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남자간호사 연 배출 인원 1천명 시대가 열렸고, 2017년 2천명을 넘어섰다. 2016년에는 전체 남자간호사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수는 총 1만5020명이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는 전체 합격자 중 11.8%를 차지했다. 남자간호사회는 2013년 창립했다.

주혜진 기자 hjjo@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우수과제

여성가족부는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모전은 1월 29일~2월 19일 진행됐다. 일터(85건), 꿈터(48건), 삶터(81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이 접수됐다. 2017년 78건에 비해 응모작이 3배 가량 증가했고, 직장인·학생·군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했다.

최우수상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움 정보 공시제 도입’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여성 1인 사업장을 위한 공적 방법서비스 실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유산·사산휴가의 대상을 여성에서 배우자(남성 근로자)까지 확대’를 비롯해 총 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큰 과제는 2018년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한다.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한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피부에 와닿는 성차별 사례

경기도 수원시간호사회 총회 ... 회원 복지증진 주력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호사회(회장 박미미)는 제1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20일 오후 2시 오송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회원 복지증진에 주력키로 했다. 간호사 할당나들이 행사 규모를 확대해 개최하고, 회원 힐링 특강을 실시한다. 어르신나들이 행사, 시민 건강상담 등 봉사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개회식에서 전현연 경기도간호사회 제1부회장이 축사를 했다. 수원시간호사회는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200만원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시상식은 진행됐다. △수원시장 표창장 = 박미미(수원시간호사회)

와 의미 있는 정책 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이를 활용해 우리 사회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